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83-110  
<https://doi.org/10.29212/mh.2018..10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메이지(明治) 시기 해군장교의 저술 속 이순신(李舜臣)

—오가사와라 나가나리(小笠原長生)의 저술을 중심으로—

김준배\*

1. 머리말
2. 오가사와라 나가나리의 약력
3. 해상권의 중요성과 이순신
4. 군인의 귀감으로서의 이순신
5. 맺음말

## 1. 머리말

근대 일본 해군 중 이순신(李舜臣)을 가장 깊이 연구하고, 존경했던 인물을 들자면 사토 데쓰타로(佐藤鉄太郎)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해군본부 대위. 본 논문은 해군 보안성 검토를 필한 논문임.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육군이 작전의 중심이었던 일본의 메이지(明治) 국방사상을 해군 중심의 ‘해주육종(海主陸從)’으로 바꾼 해군의 사상가로서 유명하다. 그는 초급장교 시절 조카이(鳥海)함 근무 중 인천에 기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순신의 전사를 깊이 연구했다고 하며,<sup>1)</sup> 그러한 그의 초급장교 시절의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은 그가 중장(中將)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의 저작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육주해종(陸主海從)’을 해주육종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이론을 제공했던 1908년의 『제국국방사론(帝國國防史論)』인데, 이는 그가 해군대학교 교관을 하던 1907년 당시의 강의록 『해방사론(海防史論)』에 수정·가필을 가한 것이다.<sup>2)</sup> 이 책에 이순신에 대한 극찬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의 강의를 들은 일본 해군의 고급장교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순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일본 메이지 해군 중에서 사토보다 이른 시기에 해군 및 국민일반에게 이순신을 알린 것은 오가사와라 나가나리(小笠原長生)였다. 그는 1908년 사토의 『제국국방사론』보다 10년 이른 1898년에 『제국해군사론(帝國海軍史論)』을, 1902년에는 『일본제국 해상권력사강의(日本帝國海上權力史講義, 이하 해상권력사강의)』를 발표하며 있는데, 두 저술에서 모두 이순신을 다루면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제국해군사론』은 해군 수뇌부(首腦部)의 명을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술, 메이지(明治) 일왕의 서견(書見) 이후 전국 중학교로 배포된 것이며,<sup>3)</sup> 『해상권력사강의』는 사토의 『제국국방사론』처럼 오가사와라가 해군대학교 교관일 당시의 강의록을 책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해군 고급장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만큼 이 두 저술이

1) 佐藤鉄太郎, 『帝國國防史論(上)』, 原書房, 1908, p.4.

2) 石川泰志 著, 戰略研究學會 編, 『戰略論大系』 9, 芙蓉書房出版, 2006, p.121.

3) 오가사와라는 당시 이토 스케유키(伊東祐亨) 해군 군령부장의 명을 받아, 해상제패 사실을 정리한 『제국해군사론』을 1898년 가을에 탈고, 천황의 서견(書見)이후 인쇄하여 전국 중학교에 기증하였다.(田中宏巳, 『佐藤鉄太郎—海主陸從の理論的旗手』, 『歴史読本』 10卷4号, 新人物往来社, 1985, p.149).

일본 내에 이순신을 전파하는 데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저술 속에서 이순신의 활약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파하고 있으며, 이순신의 활약을 주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록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사토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오가사와라이지만, 그가 일본 내에 이순신을 전파하는 데에 일익(一翼)을 담당했음에는 틀림없다.

사토 데쓰타로에 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 오가사와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와의 관계, 그의 청일전쟁·러일전쟁사 편찬, 그와 쇼와(昭和) 시대 군국주의(軍國主義)와의 관련성 등에 주목해왔으며, 그의 이순신 서술에 주목한 연구는 극히 적다. 또한 이순신에 관한 연구는 오가사와라의 저작 중 『해상권력사상의』 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발행된 『제국해군사론』에서의 이순신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토와 오가사와라 두 사람이 저술 속에 이순신을 등장시킨 것은 당시 메이지 해군의 해주육종론 달성을 위함이었다고 하지만,<sup>4)</sup> 오가사와라의 저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해주육종론을 주장한 적은 없으며, 때문에 그의 저술 속 이순신 또한 해주육종론 달성을 위해서 등장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순신은 당시 메이지 해군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속에서 오가사와라의 저술 속에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오가사와라의 개인적 행적을 고려해보면 그의 저술 속 이순신은 해군력 확장 이외에도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의 논지 전개를 통해 확인해 볼 예정이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소설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는 그의 저서 『메

4) 宋判權, 「旧日本軍関係者文書に見る李舜臣」,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5号, 鳥取女子短期大学院, 2007, p.48.

이지라고 하는 국가(明治という国家)』에서 ‘이순신을 발견한 것은 메이지 일본해군이였다.’<sup>5)</sup>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는 또한 ‘1904, 5년경의 일본 해군사관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학교에서 배우고, 책으로 읽어서 잘 알고 있던 것이다.’<sup>6)</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학자로 유명한 박은식(朴殷植) 또한 1915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기초한 『이순신전』 서문에서, ‘저 일본인이 이(이순신)를 스승으로 삼았도다.’라는 말과, 이순신으로 인해 ‘일본 군사계의 교육이 실로 그 혜택 받은 것이 많다’고 한 바 있다.<sup>7)</sup> 이들의 주장은 1914년 일본 해군장교들의 친목회 ‘스이코샤(水交社)’에서 발간한 『이순신전』을 비롯하여, 1900년대 오가사와라나 사토와 같은 이들이 해군대학교에서 이순신 강의를 하고, 그 강의록을 책으로 출판한 것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시바 료타로나 박은식의 서문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1915년 이전에 일본에서는 이미 이순신에 관한 연구와 서적이 다종다양하게 발간되었다. 오가사와라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메이지기 해군 내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보다 이른 시기에 일본 해군 내에서 이순신을 연구한 오가사와라에 대한 주목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오가사와라 나가나리의 약력

오가사와라는 에도 막부(江戸幕府)의 로주(老中 : 막부에서 정무를

5) 司馬遼太郎, 『明治という国家』, 日本放送出版協会, 1989, p.210.

6) 司馬遼太郎, 前掲書, p.210.

7) 박현규·권혁대, 『朴殷植 『李舜臣傳』의 全文 발굴과 분석』, 『이순신연구』 창간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3, 233쪽.

총괄하던 직책)였던 오가사와라 나가미치(小笠原長行)의 장남으로서 1867년 에도(江戸, 지금의 도쿄)에서 태어났다. 무가 출신의 자제로서 전통적 한자교육을 받고 메이지 정부의 의무교육을 받은 그는,<sup>8)</sup> 1880년 가쿠슈인(學習院)을 거쳐 1884년 9월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에 입학했다. 14기로 해군병학교를 졸업한 그의 동기에는 후에 총리대신을 지낸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와 사토 데쓰타로가 있었다.<sup>9)</sup> 1894년 다카치호(高千穂) 함의 분대장으로서 청일전쟁(淸日戰爭)에 출전한 그는, 이후 군령부(軍令部) 청일전사(淸日戰史) 편찬위원이 되어 군사사(軍事史)에 관한 문필활동을 시작한다. 러일전쟁 당시에는 군령부 참모로 근무하였으며, 전쟁 이후 해군대학교 교관 등을 거쳐 1914년 4월부터 1921년 3월까지 도구온가쿠몬쇼(東宮御學問所, 일왕가 태자 교육기관) 간사로 일하게 되었다. 도고가 당시 도구온가쿠몬쇼의 총재였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서 모시며 함께 태자 시기의 쇼와(昭和) 일왕의 교육을 담당했다.<sup>10)</sup> 그는 이 시기 도고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외부인이 보기에는 오가사와라와 도고가 표리일체(表裏一體)의 관계로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sup>11)</sup> 그는 도고를 충군애국(忠君愛國)의 귀감으로서 존경하였으며, 다이쇼기(大正期)부터 쇼와기(昭和期)에 걸쳐 도고에 관한 저작과 선전활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여, 도고 헤이하치로의 이미지를 ‘성장(聖將)’으로 만드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sup>12)</sup> 1918년에 해군 중장(中將)이 되었으며, 1921년 예편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저작, 강연활동을 비롯해 서도가(書道家)로도 명성을 떨쳤으며, 가부키(歌舞伎)계와의 교류는 물론 종교계와도 교류했다. 화족(華族) 출신인 만큼 화족회관에서의 활동도 산견(散見)되며, 그가 졸업

8) 田中宏巳, 『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 『歴史読本』 49(4), 新人物往来社, 2004, p.145.

9) 石川泰志 著, 김일상 역, 『일본해군국방사상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5, 29쪽.

10) 飯島直樹, 『翻刻と紹介「小笠原長生日記 昭和八年」』, 『東京大学日本史学研究室紀要』 21卷, 東京大学人文社会系研究科, 2017, p.211.

11) 田中宏巳, 前掲書, p.145.

12) 飯島直樹, 前掲書, p.211.

했던 가쿠슈인의 원장 취임을 요청받기도 했다.<sup>13)</sup> 말년에는 2·26사건 당시 쿠데타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sup>14)</sup> 1958년 향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문재제독(文才提督)이라고 불릴 만큼 저술활동으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명문가의 장남이었던 그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은 덕분에 문학적 자질이 매우 뛰어났다. 14·15세의 그가 이미 조루리(淨瑠璃 : 일본의 전통인형극)와 가부키(歌舞伎 : 일본의 전통가면극)의 대본을 썼다고 하니, 문장력이 이미 일반적인 어른 이상이었던 것이다.<sup>15)</sup> 이러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다. 임관 후 청일전쟁의 체험을 기반으로 1895년 『해전일록(海戰日錄)』을 저술하고, 1898년에는 『제국해군사론』, 1902년에는 『해상권력사강의』를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도고의 전기를 비롯, 『대해전비사(大海戰秘史)』, 『격멸(擊滅)』 등 수많은 전쟁사 서적을 간행한다.

해군에 있어 최초의 전사편찬이었던 청일해전사 편찬<sup>16)</sup>이 오가사와라에게 맡겨진 것은 그가 청일전쟁 중 『해군전기(海軍戰記)』를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연재하고, 그 이후 『해전일록』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저작을 간행하여 세간에서 평판을 얻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그는 이후 해군의 전사편찬 작업 중 하나였던 러일해전사 편찬에 있어서도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sup>18)</sup> 일본역사에 대한 소양, 편찬능력 면에서 그와 겨룰 인물은 없었으며, 그 때문에 그

13) 飯島直樹, 前掲書, p.215.

14) 岡田貞寛, 『父と私の二・二六事件』, 講談社, 1989, pp.266-270.

15) 太平洋学会, 『太平洋人物誌 佐藤鉄太郎』, 『太平洋学会誌』 51号, 太平洋学会, 1991. 7, p.102.

16) 田中宏巳, 『日清・日露海戦史の編纂と小笠原長生』, 『軍事史学』 第18卷第3号, 軍事史学会, 1982, p.39.

17) 田中宏巳, 前掲書, p.40.

18) 田中宏巳, 前掲書, 1982 p.38.

에게 청일·러일전쟁사의 편찬사업이 맡겨지게 된 것이다.<sup>19)</sup> 이처럼 오가사와라는 전사의 대가였으나, 전사편찬은 철저히 비밀주의에 입각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전사를 편찬한 것을 주위에 그다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sup>20)</sup>

앞서 언급한 사토 데쓰타로와는 같은 해군의 대표적 지장(智將)으로서 문필(文筆)상의 라이벌이었다. 다양한 대중서를 발간한 덕분에 국민적 지명도는 오가사와라 쪽이 훨씬 높았지만, 해군 내에서의 연구가, 이론가로서의 명성은 사토 쪽이 단연 높았다.<sup>21)</sup> 그러나 둘은 해군병학교 동기일뿐 아니라 매우 친했으며,<sup>22)</sup> 사토의 처는 오가사와라의 여동생이었다.<sup>23)</sup> 또한 사토가 앞서 언급한 도구온카쿠문쇼에서 태자에게 전사(戰史)를 강의한 바 있는데, 이 또한 동기생 오가사와라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sup>24)</sup> 1934년에는 왕실 방면에 영향력이 있던 오가사와라의 후원으로 사토는 귀족원(貴族院) 의원이 되기도 했다.<sup>25)</sup> 이렇듯 관계가 깊은 두 명의 해군장교가 이순신에 대해 같은 견해를 나타내며, 그에 관해 저술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제국 국방사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을 표출한 사토와는 달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고에 경도된 오가사와라는 러일전쟁 이후 이순신에 관한 언급을 그다지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러일전쟁 이전에 집필된 두 저작, 『제국해군사론』과 『해상권력사강의』에는 이순

19) 田中宏巳, 「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 『歴史読本』 49(4), 新人物往来社, 2004, p.145.

20) 田中宏巳 「佐藤鉄太郎—海主陸従の理論的旗手」, 『歴史読本』 10卷4号, 新人物往来社, 1985, p.149.

21) 田中宏巳, 前掲書, p.153.

22) 오가사와라의 첫 저작 『해전일록』에는 「포함 아카기(赤城)의 항해장 사토 대위, 2번 분대장 마쓰오카(松岡) 대위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라는 서술이 있다.(小笠原長生, 『海戦日録』, 春陽堂, 1895, p.86).

23) 太平洋学会, 前掲書, p.102.

24) 田中宏巳, 前掲書, p.148.

25) 田中宏巳, 前掲書, p.153.

신의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상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이후의 내용을 통해 두 저술의 집필 목적과 두 저술 속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3. 해상권의 중요성과 이순신

오가사와라가 1898년 집필한 『제국해군사론』 과 1902년 집필한 『해상권력사강의』 는 동일하게 일본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국해군사론』 이 일반대중을 겨냥하고 집필되었기 때문에 보다 평이한 문체로 서술되었다면, 『해상권력사강의』 는 해군대학교에서 고급장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된 내용과 주제는 거의 비슷하며, 후에 나온 『해상권력사강의』 가 앞서 간행된 『제국해군사론』 을 보충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 두 저술의 주제는 ‘해상권(海上權, 혹은 해상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두 저술의 전반에 드러난다.

해상권력이 쇠퇴하면 종종 우리 국경지대의 백성이 침략을 받았다.<sup>26)</sup>

군략(軍略)의 대요소(大要素)는 적의 해상권을 제압하는 것<sup>27)</sup>

적에게 해상의 권력을 장악당하면 우리 항해의 통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통상무역도 뜻대로 할 수 없다.<sup>28)</sup>

위의 서술을 통해 오가사와라가 『제국해군사론』 과 『해상권력사강의』

26) 小笠原長生, 『帝國海軍史論』, 春陽堂, 1898, p.36.

27) 小笠原長生, 前掲書, p.120.

28) 小笠原長生, 前掲書, p.131.



에서 이순신을 소개하고, 그를 높이 평가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는 이순신을 소개하며 말하기를, 그가 ‘팔도무쌍(八道無雙)의 명장(名將)’<sup>29)</sup>이며, ‘조선을 평안케 한 인물’<sup>30)</sup>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순신은 ‘만사에 장군다운 기량을 갖춘’<sup>31)</sup> 사람으로서, 그가 출진하면 일본 수군은 모두 ‘싸울 용기를 잃었다’<sup>32)</sup>고 주장한다. 두 저술에서 모두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오가사와라가 위와 같이 이순신을 높이 평가한 원인 또한 ‘해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순신을 서술하는 내내 그와 함께 ‘해상권’의 중요성을 논한다.

특히 다른 부대도 이순신이 나온 것을 듣고 기가 꺾여, 모두 섬 그늘 혹은 만내에 잠복하여 겨우 얻은 해상권을 다시 이순신이 점령하게 되었다.<sup>33)</sup>

이순신은 한산도에 주둔하여 해상 권력을 장악하여 우리로 하여금 반걸음도 서쪽으로 내딛을 수 없게 했다.<sup>34)</sup>

순신은 일단 우리 손에 돌아온 해상 권력을 다시 환탈했다.<sup>35)</sup>

순신은 한산도를 근거지로 하여 확실히 아군의 서진을 막고, 그 후 수회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다. 우리 수군은 수개월의 기나긴 동안 부산포 내에 숨어있는 것뿐으로, 다시 나와 싸울 용기가 없었다. 해상의 권력은 전부 그가 확고히 지키고 있었기에, 전쟁의 대요소(大要素)는 이에 전부 소멸되어서, 질풍같이 맹진했던 우리 육군도 스스로 고립된 형세가 되었다.<sup>36)</sup>

29) 小笠原長生, 前掲書, p.43.

30) 小笠原長生, 『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p.133.

31) 小笠原長生, 前掲書, p.136.

32) 小笠原長生, 前掲書, p.119.

33) 小笠原長生, 前掲書, p.129.

34) 小笠原長生, 『帝国海軍史論』, 春陽堂, 1898, p.45.

35) 小笠原長生, 前掲書, p.49.

36) 小笠原長生, 『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p.119.

이 모두 해상권을 잃으면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만세불변의 원칙에 반하였기 때문이다.<sup>37)</sup>

이처럼 오가사와라가 해상권을 강조하면서 이순신과 해상권을 지속적으로 결부지어 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상권력사강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오가사와라는 이토 스케유키 당시 해군 군령부장의 명을 받아 『제국해군사론』을 저술했다고 한다. 저술의 목적은 일반인에게 해상권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해군을 확장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토와 오가사와라의 서문에 나와 있다.

해군 경영은 지난(至難)하다. 때문에 진실로 해군의 확장을 도모하기 원한다면 먼저 국민 일반의 해사사상(海事思想)을 발달시켜 온 나라의 일치의 실(實)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오가사와라 대위가 이 책을 저술한) 그 뜻은 생각건대 해국(海國) 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곱곰이 음미하게 하여 해상 권력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자 함에 있다.<sup>38)</sup>

세상에는 무적의 일대 세력이 있다. 이는 해상권이라고 한다. 이는 단지 국운융성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전시에 승패의 대국을 결정하는 원동력이 된다. (중략) 논의가 심오원박(深奧遠博)하여 소년 자제들이 능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 만약 이를 평이하게 기술한 책이 없다면 우리 국민이 그 진가를 살필 자가 적고 해군의 확장에 있어서 거국일치의 결과를 바라기 어렵다.<sup>39)</sup>

이는 『해상권력사강의』의 집필 목적과도 일치한다. 1900년 12월 해군 대학교 교관을 겸직하게 된 오가사와라는 「제국 해상권력사」라는 과목의 강의를 명받아 해군장교들을 대상으로 이를 강의하고, 이 강의록의 원고를 기초로 하여 『해상권력사강의』를 낸 바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또한 해상권에 관한 주요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37) 小笠原長生, 前掲書, p.121.

38) 小笠原長生, 『帝國海軍史論』, 春陽堂, 1898, 「序」.

39) 小笠原長生, 前掲書, 「自序」.

활안(活眼)으로 자세히 열람해보면, 역사적으로 해상권에 관한 흥미진진(趣味津津)한 일이 끊이 없음을 느낀다.<sup>40)</sup>

‘해상권-Sea power’은 당시 일본 해군에 새로이 들어온 개념으로서, 미국의 전쟁사학자 앨프리드 세이어 머헨(Alfred Thayer Mahan)의 1890년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머헨은 해상무역의 발달이 곧 국민번영의 기초가 되고, 해군력은 오로지 해상무역을 보호하는데에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세한 해군력에 의한 제해권(制海權)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머헨의 주장이 담긴 저서는 일본 스이코샤의 잡지 『스이코샤 기사(水交社記事)』에 1893년 7월 그 개요가 소개되어, 1896년에는 『해상권력사론(海上權力史論)』이라는 제목으로 완역되었다.<sup>41)</sup> 오가사와라 또한 『제국해군사론』에서 머헨의 『해상권력사론』의 요점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으며,<sup>42)</sup> 『해상권력사강의』 서언(緒言)에서도 머헨의 이론을 언급하고 있다.<sup>43)</sup>

이러한 해상권의 개념은 당시 해군의 확장을 바라던 일본 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던 일본에게 제해권 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었으므로, 해군은 해군력 확장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893년 1월, 해군은 당시 육군 우위(優位)의 체제를 개정하여 ‘해군 참모본부(海軍參謀本部)’의 창설 계획안을 내각에 제출하였으나 육군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sup>44)</sup> 당시 국민은 해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sup>45)</sup> 이 점을 육군이 파고들어 반론을 제기한 것이었다. 일본 해군은 영국 해군을 목표로 삼고 있

40) 小笠原長生, 『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自序」.

41) 松田十刻, 『東郷平八郎と秋山真之』, PHP研究所, 2008.

42) 小笠原長生, 『帝国海軍史論』, 春陽堂, 1898, p.195.

43) 小笠原長生, 『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p.2.

44) 石川泰志 著, 김일상 역, 前掲書, p.24.

45) 田中宏巳, 前掲書, p.149.

었기 때문에, 일본이 섬나라인 이상 국방계획에서 해군은 적어도 육군과 대등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sup>46)</sup>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은 머헨의 『해상권력사론』을 번역·도입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그 첫 과제로서 메이지 해군은 적극적으로 해상권의 중요성을 전파해나가기 시작했고, 해상권을 제압하여 성공한 사례, 혹은 제압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를 모아 책으로 낸 것이다.

그 사례의 하나로서 임진왜란과 이순신은 매우 적합했다. 불리하기 그지없던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이순신과 그의 함대는, 오가사와라는 물론 일본 해군이 원하던 해상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대중에게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해상권을 제압하지 못해 자신들이 실패한 사례’로서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미 당시 출간된 일본 내 여러 서적에서 이순신의 활약 때문에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으며,<sup>47)</sup> 이미 해군력 확장을 위한 주장의 근거로서 활용되기도 했다.<sup>48)</sup> 그러나 육군의 반대와 국민 공감의 부족으로 이전까지는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웠는데, 머헨의 『해상권력사론』이 출간됨으로써 해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오가사와라는 머헨의 이론을 기반으로 이순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평을 남긴 것이다.

임진왜란 같은 것을 사실대로 씀(直筆)으로 그 진면목을 기술하는 것은 자못 불쾌한 감이 있으나, 만일 해상권력을 쥐는 것의 필요성을 말하길 원한다면,

46) 石川泰志 著, 김일상 역, 前掲書, 31쪽.

47) 다음 책들은 이순신이 수행한 한산도해전으로 인해 일본수군이 육군과 합류하지 못하였으며, 이로인해 육군 또한 진격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吉田利行, 『日本略史』 卷之2下, 池園詔, 1888; 内藤耻叟 校閲, 『日本帝國史』, 博文館, 1889; 松井広吉, 『新撰大日本帝國史』, 博文館, 1891; 福田久松, 『大日本文明略史』, 福田久松, 1891; 秦政治郎, 『日本帝國歴史』, 博文館, 1892 등)).

48) 김준배, 「『朝鮮李舜臣傳』 著述目的に関する一考察—小田切万寿之助の『朝鮮』との関連性を中心に」, 『일본언어문화』, 제40집, 2017, 234쪽.

먼저 우리의 실패한 사적(事蹟)을 들어 은감(殷鑑) 거울로 삼아야 할 실패한 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히데요시(秀吉)는 동양에 둘도 없는 영걸(英傑)로서 부하 장수도 모두 천군만마 중 뛰어난 인물들이다. (중략) (그러나 그들은) 평양에서 복진할 수 없었다. (중략) 이것은 우리 수군(水軍)의 여러 장수들이 해전 전술에 졸렬(拙劣)하여 순신 때문에 시종 해상권력을 장악당한 죄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sup>49)</sup>

위의 글에서 오가사와라는 ‘실패한 사적을 은감으로 삼기 위해’ 임진왜란의 예를 거론하였으며, 이는 ‘해상 권력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한 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서 활용된 것은 비단 이순신의 사례 뿐만은 아니었다. 오가사와라는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이 영국 침공에 실패한 것도 넬슨(Horatio Nelson)의 함대에 패배하여 해상권 장악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도 해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국민은 트라팔가(Trafalgar) 해전을 단순히 장렬하고 호쾌한(壯絶快絶) 전기(傳記)로서 읽으면 안 된다. (중략) 전 유럽 민족을 도탄(塗炭)에서 구해 평화를 지켜낸 것도 또한 이 한 번의 전투에 있다. (중략) 즉 이는 해상권력의 덕택이외에는 아니며, 해국민(海國民)이 가장 열독(熱讀)해야 하는 것이다.<sup>50)</sup>

청국의 함대는 황해(黃海)에서 격파당해 해상권을 잃었기에, 자연히 연안의 방비를 엄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중략) 해상권을 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sup>51)</sup>

해상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청)의 대군(大軍)은 흡사 나무인형(木偶) 같아서, 결국 우리 군의 상륙을 막을 수 없었다.<sup>52)</sup>

49) 小笠原長生, 『帝國海軍史論』, 春陽堂, 1898, p.52.

50) 小笠原長生, 前掲書, p.188.

51) 小笠原長生, 『日本帝國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學校); 1904(春陽堂), p.431.

52) 小笠原長生, 前掲書, p.433.

(청일전쟁의 승리는) 모두 해상권 획득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53)</sup>

오가사와라가 두 저술에서 이순신, 벨슨, 그리고 청일전쟁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종 해상권 장악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은 앞서 서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군의 확장’을 위해서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행동을 할 때도 우세한 해군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세불변의 원리로서 또한 성공의 기초이다.<sup>54)</sup>

제국의 위엄과 독립을 온전히 지킬(保持)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세한 해군을 갖고 해상권을 장악한 것에 있을 뿐이다.<sup>55)</sup>

실로 제국 해군력은 제7위로서 영국의 6분의 1, 프랑스의 3분의 1, 러시아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가지고 족하다고 하지 않는다. 부단히도 악착같이 싸워 이(해군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은 그 목적으로 하는 바, 해상권 투쟁 이외에는 아니니,<sup>56)</sup>

정리하자면 『제국해군사론』 과 『해상권력사강의』 는 해군의 확장이라는 메이지 일본 해군의 목표를 집필 활동을 통해 가시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해군은 육군에 대해 해군력 확장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으며, 종래에는 사토 데쓰타로의 『제국국방사론』 을 기점으로 육군 중심이었던 메이지 일본 국방사상을 해군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오가사와라의 저술이 ‘해주육중’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머헨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군의 확장을 위한 해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53) 小笠原長生, 前掲書, p.464.

54) 小笠原長生, 『帝國海軍史論』, 春陽堂, 1898, p.163.

55) 小笠原長生, 前掲書, p.191.

56) 小笠原長生, 前掲書, p.213.

이다. 이러한 그의 저술이 이후의 ‘해주육종론(論)’에 일부 기여했음에는 틀림없으나, 엄연히 사토의 『세국국방사론』 저술목적과는 구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사토가 그 스스로 머헨의 『해상권력사론』 같은 이론서를 집필하여 해주육종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인물이라면, 오가사와라는 그에 앞서 해군의 확장을 위해 동양(東洋)의 사례, 즉 이순신의 사례를 발굴한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군인의 귀감으로서의 이순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가사와라의 저술 속 이순신은 해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사례로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저술 속에서 이순신은 또 다른 측면의 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오가사와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사 편찬위원을 지낸 인물로서, 당시 전쟁사를 편찬하는 이유는 ‘군인의 귀감(龜鑑)’을 찾아 후진을 자극하고, 국가에의 봉사 정신을 일으키며, 전의 고양·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있었다.<sup>57)</sup> 이때의 ‘군인의 귀감’이란 단순한 용맹하고 강한 군인이 아닌, 도쿠가와(德川) 막부 시대 이래 유교사상에 기반한 도덕관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군주제 국가인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으로서의 규범적 행위를 한 인물을 가리켰다.<sup>58)</sup> 이러한 ‘군인의 귀감’ 만들기는 군인의 명예를 고취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것은 감추려는 경향을 보였다.<sup>59)</sup>

오가사와라는 이러한 ‘군인의 귀감 찾기’를 평생 동안 성공적으로 수

57) 田中宏巳, 「忠君愛國的「日露戦争」も伝承と軍国主義の形成—小笠原長生の役割を通して」, 『国史学』 126, 国史学会, 1985, p.32.

58) 田中宏巳, 前掲書, p.34.

59) 田中宏巳, 前掲書, p.33.

행한 인물이다. 1921년의 『도고원수상전(東郷元帥傳)』을 시작으로 도고의 전기를 솔하게 집필하였고, 도고 사후에는 도고 신사 및 절 건립에 최선을 다했다.<sup>60)</sup> 특히 그는 도고 전기를 집필할 때 항상 러일전쟁을 대단원으로서 막을 내리는 방식을 취했으며,<sup>61)</sup> 도고의 모든 행동, 즉 그의 인격, 생활, 활약 등을 충군애국과 연결했다.<sup>62)</sup> 이러한 그의 도고 전기 집필방식은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그가 작성한 도고의 전기는 출간 2개월 만에 3판 인쇄가 들어갈 정도였다.<sup>63)</sup> ‘도고를 신으로 만든 인물’이라는 그에 대한 평가는,<sup>64)</sup> 그가 도고 헤이하치로를 어떻게 군인의 귀감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평가라 할 수 있다.

메이지 일본 해군은 해군의 확장과 동시에, 이러한 ‘군인의 귀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1904년 당시 군령부 차장이었던 이주인 고로(伊集院五郎)는 해군 전반에 ‘군인의 귀감 사례를 수집하라’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배포한다.

무인의 귀감으로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은 제국군인의 명예를 현양(顯揚)하고 후대의 자제들을 격려하여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을 일으키는 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략) 그 아는 바를 기재하여<sup>65)</sup>

오가사와라 또한 이와 거의 동시에 전사편찬상의 이유로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한 것’<sup>66)</sup>을 찾는 의뢰서를 해군 전반에 배포한다. 이주인과

60) 田中宏巳, 「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 『歴史読本』 49(4), 新人物往来社, 2004, p.147.

61) 田中宏巳, 前掲書, p.147.

62) 田中宏巳, 「忠君愛国的「日露戦争」も伝承と軍国主義の形成—小笠原長生の役割を通して」, 『国史学』 126, 国史学会, 1985, p.43.

63) 田中宏巳, 前掲書, p.43.

64) 田中宏巳, 「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 『歴史読本』 49(4), 新人物往来社, 2004, p.147.

65) 防研図書館, 「明治三十七八年海戦史編纂經過一般—二、海戦史材料蒐集方法」, 『戦時日誌一覽表』.

66) 田中宏巳, 「忠君愛国的「日露戦争」も伝承と軍国主義の形成—小笠原長生の役割を通して」, 『国史学』 126, 国史学会, 1985, p.31.



오가사와라의 노력의 결과물로서 1908년 해군교육본부에서 편찬, 충용현창회(忠勇顯彰會)에서 발행한 『메이지 37·8년 전쟁 해군성충록(明治三十七八戰役 海軍誠忠錄)』은 ‘군인의 귀감’의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이다.<sup>67)</sup> 수록 내용은 「적함과 육탄전을 벌여 적탄에 산화 하거나, 「충신은 효자의 문(門)으로부터 나온다」 거나, 「일왕의 가르침을 받들어 전투 중에 순직」 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sup>68)</sup> 공교롭게도 이러한 ‘군인의 귀감’ 사례로 나오는 것들은 이순신의 생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적탄에 산화하는 효자이자 충신, 그리고 전투 중 순직하는 모습은 이순신의 생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오가사와라의 행적을 고려해본다면, 『제국해군사론』에서 서술된 다음과 같은 이순신의 모습은 의미가 있다.

(이순신이) 하늘에 빌며 말하길 “하느님시여 순신의 작은 충의를 기엿게 여기십시오. 바라건대 전투에서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구구(區區)한 이 한 몸, 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기는 오로지 바라는 바입니다.”<sup>69)</sup>

위의 이순신의 맹세는 그가 노량해전(露梁海戰)에 나아가기 직전 서술된다. 위 글의 출처를 찾아보면, 1629년 『백사집(白沙集)』에서는 「오늘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오니, 하늘에 바라건대 반드시 이 적을 섬멸하게 하여 주소서(今日固決死願天必殲此賊)」이며, 이 말은 1795년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卷) 9 행록(行錄)에서 노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이 한 말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此讎若除死即無憾)」라는 말로 나온다. 어느 부분에서든 죽음을 각오한 이순신의 다짐은 살펴볼 수 있으나, ‘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없다. 이순신의 국가에 대한 충성은 그에 대한 기록 곳곳에

67) 田中宏巳, 前掲書, p.33.

68) 田中宏巳, 前掲書, p.34.

69) 小笠原長生, 前掲書, p.50.

서 살펴볼 수 있으나, 이 부분에서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발언은 오가사와라의 창작으로 보인다.

『제국해군사론』이 명백히 ‘사론(史論)’이며, 소설적 창작력을 발휘할 공간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오가사와라의 위와 같은 창작은 유의미하다. 위의 발언은 ‘군인의 귀감’의 중요 요소인 ‘군주제 국가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전투 중의 순직을 각오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같은 저술 속 넬슨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제국해군사론』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함대를 앞에 두고 넬슨이 다음과 같이 하늘에 비는 장면이 나온다.

내가 존경하고 숭배하는 하느님이여, 바라건대 우리 영국에赫赫(赫赫)한 대승을 주시옵소서. 전 유럽의 인민을 도탄으로부터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장졸로 하여금 한명도 비겁한 행동을 하는 자가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중략) 단지 국가에 다하는 충절(忠節)을 애석하게 여기시어 가호를 내려 주십시오.<sup>70)</sup>

위의 발언도 넬슨의 전기 등에서 그 출처를 확인해 볼 수 없다. 오가사와라의 저술에서는 이순신의 경우처럼 넬슨도 전투를 앞두고 ‘국가에 대한 충절’을 다짐하며, 이후의 서술에서도 넬슨의 국가에 대한 ‘충절’과, ‘진충(盡忠)’이 누차 강조된다. 오가사와라가 두 명의 훌륭한 해군 장수의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자살한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 정여창(丁汝昌)에 대한 서술을 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청 해군 중에서 가장 명예가 높은 정여창, 장문선(張文宣)이 국가를 위해 자살한 것을 듣기에 이르자,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는다.<sup>71)</sup>

70) 小笠原長生, 前掲書, pp.181-182.

71) 小笠原長生, 『日本帝國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學校); 1904(春陽堂), p.159.

위와 같이 오가사와라는 항복을 거부하며 자결한 정여창의 충의를 칭송하고, 그를 ‘충의지사(忠義の士)’로 표현한다.<sup>72)</sup> 이러한 자결 또한 오가사와라는 ‘국가를 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의 서술 속에서 앞서 살펴본 이순신도, 벨슨도, 정여창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국해군사론』에서 오가사와라는 줄곧 해전에서 활약한 장수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활약과 죽음을 ‘국가를 위한 것’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서술방식은 3년 전 그가 청일전쟁 직후 저술한 처녀작 『해전일록』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여기에서도 오가사와라는 내내 충군애국정신과 진충보국(盡忠報國)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충군애국정신과 용기의 일념이 그들보다 뛰어나다면 칠천여 톤의 거함을 일갈하여 쳐부수겠으니<sup>73)</sup>

그들은 출진의 명을 받자 실로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처자를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돌아보는 것은 진충보국(盡忠報國)의 4글자뿐이었다.<sup>74)</sup>

위의 서술을 통해 오가사와라가 해군의 전사편찬사업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그의 저술에서 누차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서술의 태도로 인해 그가 해군으로부터 『제국해군사론』 저술과,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전사편찬사업에 적합한 인물로 선택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4년 뒤의 『해상권력사상의』에서 오가사와라는 ‘군인의 귀감’으로서 이순신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한다. 이는 다음의 서술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72) 小笠原長生, 前掲書, p.147.

73) 小笠原長生, 前掲書, pp.130-131

74) 小笠原長生, 『海戰日録』, 春陽堂, 1895, p.134

이순신은 잘 싸울 뿐 아니라 만사에 장군다운 기량을 갖추었다. (중략) 일본의 대장이 공을 다룬 것과, 이순신의 행동과 대조해보면 매우 상이하다. 이것도 승패를 가르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된다.<sup>75)</sup>

오가사와라는 이 대목에서 비록 적국의 장수이지만 이순신을 잘 싸울 뿐 아니라 만사에 장군다운 기량을 갖추었다며 이순신을 칭찬하고, 이를 일본의 수군 대장들과 비교하며 ‘승패를 가르 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순신을 ‘만사에 장군답다’고 서술한 『해상권력사강의』라는 책이 해군대학교 교관 시절 해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록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오가사와라는 일본 해군장교가 만사에 이순신 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이순신의 면모가 그렇지 못했던 일본 대장들과 대조되어, 승패를 가르 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가사와라는 장군의 행동이 승패의 한 요인이니만큼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대장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며, 메이지 일본 해군장교들은 이순신의 행동을 배워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언급을 고려해 본다면, 그에게 있어 군인의 귀감은 바로 이순신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이 평가에 앞서 이순신의 약력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며, ‘조선을 평안케 한 것은 이 사람’이라는 평을 내린다.<sup>76)</sup> 비록 러일전쟁 이후 오가사와라의 군인의 귀감은 도고로 바뀌게 되었지만, 적어도 이 시점까지 그는 이순신을 군인의 귀감으로서 생각하며, 그의 ‘국가에 대한 충절’과 그의 ‘만사에 장군다운’ 행동은 물론, 활약상을 적극적으로 기술했던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군인의 귀감’으로서의 이순신의 이미지는 사토 데쓰타로에게 이르러 더욱 구체화된다. 1908년 『제국국방사론』에서 사토가 이순신을

75) 小笠原長生, 『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p.136.

76) 小笠原長生, 前掲書, p.133.

높이 평가한 것은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sup>77)</sup> 여기에서 한 번 더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순신은 실로 세상을 뒤덮을(蓋世) 해군 장수로서, 불행히도 조선에서 살았기 때문에 용명(勇名)도 지명(智名)도 서양에 전해지지 않았으나, 불완전하지만 임진왜란에 관한 전기를 보면 실로 훌륭한 해군 장수였다. 서양에 있어 이와 필적할 자를 찾는다면 확실히 네덜란드의 장수 드 로이터(Michiel de Ruyter) 이상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벨슨 같은 자는 인격에서 도저히 비견할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은 실로 장갑함(裝甲艦)의 창조자로서, 3백년 이전에 이미 훌륭한 해군전술로 싸운 장수이다.

사토는 이순신을 ‘세상을 뒤덮을 해군 장수’로서, ‘용명’과 ‘지명’이 있으며, ‘훌륭’하고, 벨슨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 벨슨이 이미 널리 알려진 해군 장수이자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토의 이와 같은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과격적이라 할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토는 「서언(緒言)」에서 이순신 사적(事跡)을 조사하여 알게 된 이순신의 ‘숭고한 인격과 위대한 공적’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국방의 방침을 각성하게 했다고 한다.

(본인은 현재 일본의) 제국 국방의 방침이 과연 국가가 어려울 때 이에 응할 방법인가 아닌가 의심하였다. 이어 조선의 명장(名將) 이순신의 사적을 조사하여, 임진왜란 당시 (그가) 우리 수군을 격파한 것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인격과 위대한 공적은 격렬히 나의 정신을 일깨웠고 (나는) 공세적 국방의 의의(意義)에 관해 더욱 각성하는 바가 있었다.<sup>78)</sup>

사토의 새로운 국방의 방침, 즉 공세적 국방 방침이란 『제국국방사론』 전반에서 주장하는 해주육중론을 가리킨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77)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4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참고.

78) 佐藤鉄太郎, 前掲書, p.4.

결국 사토는 이순신을 통해 해주육종론의 의의를 각성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가사와라가 이순신을 통해 해상권의 중요성과 해군장교들의 배워야 할 인격을 발견했다면, 사토는 그가 발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순신을 연구함으로써 일본의 국방방침을 발견, 일본 해군의 전략적 기초를 세운 것이다.

메이지기가 끝나고 다이쇼(大正)기에 이르면, 이러한 오가사와라와 사토의 이순신 연구 이후 일본 해군에 이순신이 깊숙하게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 해군 유종회(海軍有終會)에서 간행한 잡지 『유종(有終)』 70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분로쿠·게이초(文祿慶長, 1592·1597년 당시 일본의 연호) 조선역(朝鮮役, 임진왜란)에서의 이순신의 사적은 늘 우리나라 사람(일본인)의 인구(人口)에 회자 되는 것으로서, 그의 수군의 근거지였던 한산도(閑山島)에는 지금도 그 유적 및 제승당(制勝堂)이 있다. 통영(統營)에는 순신을 제사드리는 충렬사(忠烈祠)가 있는 것은 우리 해군장병(將士)들이 숙지하는 바이다.<sup>79)</sup>

위에 의하면 이순신의 사적이 일본인의 입에 늘 오르내리며, 특히 통영에 충렬사가 있는 것은 해군장병들이 숙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순신이 일본 해군에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29년에도 이순신을 군인의 귀감으로 생각했던 해군장교가 있었다. 국내에도 유명한 소설로서, 해군소좌(少佐, 소령)로 전역한 가와타 이사오(川田功)의 소설 『포탄을 뚫고서(砲彈を潜りて)』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러일전쟁을 앞두고) 당연히 세계 제1의 해장인 조선의 이순신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인격, 그의 전술, 그의 발명, 그의 통솔능력, 그의 모계, 그의 용기, 하나라도 칭찬할 가치가 없는 것이 없다.<sup>80)</sup>

79) 聽濤生, 「李舜臣忠烈廟碑文邦譯」, 『有終』 70, 海軍有終會, 1919.7, p.50.

80) 川田功, 『砲彈を潜りて』, 戦記名著刊行会, 1929, p.207.

이 말은 주인공인 수병(水兵) 분키치(文吉)가 러일전쟁을 앞두고 이순신을 연상하는 장면이다. 실제 러일전쟁에 참전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니만큼, 주인공의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은 사실 해군장교였던 가와타의 존경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가사와라의 귀감이었던 이순신은 비록 도고로 바뀌었지만, 그의 저술이 발간되고 약 30여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본 해군장교는 그를 귀감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메이지기 해군장교였던 오가사와라의 두 저술 속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순신은 오가사와라의 저술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평가되고 있었으며, 그의 활약상은 오가사와라의 두 저술 속에서 자세히 묘사되었다. 이렇듯 오가사와라가 이순신의 활약상을 그의 저술 속에서 자세히 그려낸 것은 단순히 이순신에 대한 그 자신의 존경심 때문은 아니었다. 당시 해군력의 확장을 꾀하고 있었던 메이지 일본 해군 수뇌부의 지령을 받아 저술한 『제국해군사론』과, 일본 해군장교들을 교육하던 고등기관 해군대학교에서 가르친 강의록, 『해상권력사강의』에 이순신을 등장시킨 이유는 분명히 존재했다.

이순신의 활약상은 두 저술 속에서 궁극적으로 해군력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활용되었다. 이는 미국의 전사가 머헨의 저술을 이론적 기초로 삼아 일본 역사 속에서 그 사례를 찾은 것이었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 수군의 패배, 그리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승리는 해상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사례였다. 오가사와라 본인이 밝

히고 있듯, 그는 임진왜란을 기술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해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순신의 활약상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이순신은 당시 일본 국민들이 배워야 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해군장교들이 배워야 할 ‘만사에 장군다운’ 인물이었다. 군주제 국가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오가사와라는 그의 일생동안 그 역할의 최선봉을 담당했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 이순신은 가장 이상적인 ‘군인의 귀감’이었다. 그렇기에 오가사와라는 이순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찬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가사와라는 이후에도 군인의 귀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순신은 도고 이전에 그가 찾아내고 형상화한 군인의 귀감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오가사와라의 저술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순신을 다룬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제국해군사론』 과 『해상권력사강의』 두 저술은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사토의 『제국국방사론』 과 함께 메이지 해군 내에 이순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파해나갔음이 분명하다. 메이지 해군장교들의 이러한 저술활동은 이 시기 이미 발간된 역사서, 신문연재소설, 전기와 함께 일본 내 이순신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갔다.

(원고투고일 : 2018. 4. 6, 심사수정일 : 2018. 5. 2, 게재확정일 : 2018. 5. 14)

주제어 : 이순신, 오가사와라 나가나리, 제국해군사론, 일본제국해상권력사강의, 메이지 해군, 일본 해군, 李舜臣, 帝國海軍史論, 小笠原長生, 日本帝國海上權力史講義



## <참 고 문 헌>

-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4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 김준배, 「『朝鮮李舜臣傳』 著述目的に関する一考察—小田切万寿之助の『朝鮮』との関連性を中心に」, 『일본언어문화』 제40집, 2017
- 박현규권혁대, 「宋殷植 『李舜臣傳』 의 全文 발굴과 분석」, 『이순신연구』 창간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3
- 石川泰志 著, 김일상 역, 『일본해군국방사상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5
- 宋判權, 「旧日本軍関係者文書に見る李舜臣像」,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5号, 鳥取女子短期大学院, 2007
- 石川泰志 著, 戰略研究學會 編, 『戰略論大系』 9, 芙蓉書房出版, 2006
- 飯島直樹, 「翻刻と紹介 『小笠原長生日記 昭和八年』」, 『東京大学日本史学研究室 紀要』 21卷, 東京大学人文社会系研究科, 2017
- 岡田貞寛, 『父と私の二・二六事件』, 講談社, 1989
- 小笠原長生, 『海戦日録』, 春陽堂, 1895
- 小笠原長生, 『帝国海軍史論』, 春陽堂, 1898
- 小笠原長生, 『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1902.11(海軍大学校); 1904(春陽堂)
- 小笠原長生, 『東郷元帥詳伝』, 春陽堂, 1921
- 聽壽生, 「李舜臣忠烈廟碑文邦譯」, 『有終』 70, 海軍有終会, 1919.7
- 佐藤鉄太郎, 『帝国国防史論(上)』, 原書房, 1908
- 司馬遼太郎, 『明治という国家』, 日本放送出版協會, 1989
- 太平洋学会, 「太平洋人物誌 佐藤鉄太郎」, 『太平洋学会誌』 51号, 太平洋学会, 1991.7
- 田中宏巳, 「日清・日露海戦史の編纂と小笠原長生」, 『軍事史学』 第18卷第3号, 軍事史学会, 1982
- 田中宏巳, 「佐藤鉄太郎—海主陸従の理論的旗手」, 『歴史読本』 10卷4号, 新人物往来社, 1985
- 田中宏巳, 「忠君愛国的『日露戦争』も伝承と軍国主義の形成—小笠原長生の役割を通して」, 『国史学』 126, 国史学会, 1985

田中宏巳, 「小笠原長生と東郷伝説」, 『歴史読本』 49(4), 新人物往来社, 2004  
防研図書館, 「明治三十七八年海戦史編纂経過一般一二、海戦史材料蒐集方法」,  
『戦時日誌一覧表』  
松田十刻, 『東郷平八郎と秋山真之』, PHP研究所, 2008

<Abstract>

The images of Yi Sun-Sin reflected on the writings of a  
naval officer at the period of Meiji  
- Focusing on the writings of Ogasawara Naganari -

Kim, Joon-bae

Among the Japanese Navy officers during the period of Meiji in Japan, Ogasawara Naganari was the first one to announce Yi Sun-sin to the Navy and the public. He published "The History of the Imperial Navy" and "The Lectures on the Sea-Power History of the Japanese Empire," in 1898, 1902 respectively. Both of them described Yi Sun-sin positively and highly praised. "The History of the Imperial Navy" was written for the general public and distributed to middle schools in the whole country. "The Lectures on the Sea-Power History of the Japanese Empire" affected naval officers because this book was a publications of compiling notes that he lectured when Ogasawara was a navy college instructor. Therefore, these two writings played a great role in spreading Yi Sun-sin in Japan.

Ogasawara's detailed description of Yi Sun-sin was not simply due to his respect for Yi Sun-sin. In both writings, the Sea-Power was emphasized, and Yi Sun-Sin was ultimately used to achieve the goal of the expansion of navy powers. It was written by the basis of the writings of Alfred Thayer Mahan, a US war historian, as the theoretical basis and found the case in Japanese history. The defeat of Japanese nav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the victory of the Korean navy led by Yi Sun-sin were very effective in showing the importance of 'the Sea-Power'. In addition, Yi Sun-sin was a "loyal to the nation" that the Japanese people had to learn at

that time, and he was a "ideal admiral" to be learned by naval officers. As a monarchical nation, loyalty to the nation was essential, and Ogasawara was at the forefront of his role during his lifetime. For him, Yi Sun-sin was the most "ideal soldier." So Ogasawara seems to have praised Yi Sun-sin more positively.

It is clear that these two writings of Ogasawara have propagated Yi Sun-sin in the positive direction in the Meiji Navy. His writings have formed images of Yi Sun-sin in Japan along with the history books, novels, and biographies already published at this time.

Key Words : the Japanese Meiji Navy, Ogasawara Naganari, Yi Sun-Sin,  
The History of the Imperial Navy, The Lectures on the  
Sea-Power History of the Japanese Empire